

# “보육’ 위해 영·수 학원 보내” 20% 첫 돌파

초등 학부모에 교과 사교육 받은 이유 묻자  
2007년 통계 작성 이래 처음 20%대...20.6%  
예체능 사교육도 “보육 목적” 25%로 상승세  
지난해 고용조사서 맞벌이 가구 역대 최고치  
‘보육의 외주화’ 현상 심화...‘늘봄학교’로 대응  
늘봄, 예체능 중심...교과 사교육 대책은 모호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전남 무안군 오룡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창의미술 프로그램을 참관하고 있다.

선행학습 등이 아닌 보육을 위해 초등학생 자녀를 교과 사교육에 맡겼다고 답한 학부모가 전체 20%를 처음 넘었다. 정부는 초등 늘봄학교를 통해 예체능 사교육 부담을 잡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유행 이후 증가하고 있는 교과 사교육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17일 교육부와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교 학부모에게 일반교과 과목 및 논술 사교육 수강 목적을 2개 중복으로 묻자 응답자 20.6%가 ‘보육’을 택했다. 이는 조사가 실시된 2007년 이래 가장 높다. 코로나19 전인 2019년(18.8%)과 견줘 5년 새 1.9%포인트(p), 지난해(18.1%)보다 2.46%p 올랐다. 최근 5년 동안 18.8%→17.4%→17.6%→18.1%→20.6% 순이다. 물론 ‘학교수업 보충’(84%)과 ‘선행학습’(42.7%)의 응답률이 더 높았지만 보육은 3순위로 ‘진학 준비’(10.4%) 등을 앞섰다. 예체능 및 취미 교양 사교육을 받은 이유를 2개 물었을 때도 초등학교 학부모 25.3%는 ‘보육’을 꼽았다. ‘취미·교양·재능개발’(91.9%)에 이은 2위였고, ‘친구를 사귀기 위해’(12.7%), 수업보충(8.5%) 등이 뒤이었다. 예체능 사교육 목적으로 보육의 응답률이 25%대를 넘는 것 역시 조사가 시행된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23.4%)와 견줘 1.99%포인트 늘었다. 2017년(22.2%) 같은 조사에서 20%대를 처음 넘은 후 증가 추세였다. 교육부는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고 경력단절의 원인으로 육아가 1순위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사회에서 ‘돌봄의 외주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 통계청의 지난해 6월 ‘지역별 고용조사’에 따르면, 2022년 맞벌이 가구 비율은 지난 2015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인 46.1%였다. 지난해 하반기 경력단절여성 134만9000명 중 가장 많은 56만7000명

(42%)이 ‘육아’를 직장을 그만둔 이유라고 했다. 교육부의 사교육비 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였다. 지난해 ‘보육’ 목적으로 교과 사교육을 보냈다고 답한 학부모는 외벌이(5.4%)보다 맞벌이(13.7%)일수록, 자녀 수가 적을수록(1명 15.0%) 2명 9.9% 3명 이상 8.5%) 더 많았다. 초등학교 정규 수업은 저학년의 경우 통상 오후 1~3시 사이 끝난다. 학부모들이 자녀 맡길 곳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두거나 별 수 없이 자녀를 ‘학원 뺑뺑이’에 맡길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 나온 이유다. 교육부는 이에 대응해 오는 2026년부터는 초등 학생 누구나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늘봄학교는 정규 수업 이후 돌봄과 양질의 예체능 프로그램을 제공해 돌봄 사교육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한다. 올해 1학기 2741개교에서 2학기 전국 초등학교로 늘봄학교가 확산하면 내년부터 적어도 돌봄 목적의 사교육은 줄어들 것이라고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늘봄학교는 예체능 위주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 만큼, 학력에 대한 사교육 수요는 잡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이번 통계가 보여주듯, 예체능 사교육 뿐만 아니라 교과 사교육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가 공언하는 대로 사교육비 규모 자체를 줄이려면 예체능 사교육보다 수학, 영어 학원 등 교과 사교육에 대응하는 대책이 더 실효성 있다. 하지만 교육부는 아직 보다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해 사교육비 조사 결과만 봐도, 초등학교 일반교과 사교육비 총액은 7조7082억원으로 예체능 및 취미·교양의 4조6879억원보다 3조203억원(64%) 많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늘봄학교를 통해 일부 예체능 사교육 수요를 흡수하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더 필요한 건 증가하고 있는 유·초등 선행 교육과 조기 대입준비와 관계된 사교육을 경감할 대책”이라고 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처럼 사교육 뿐만 아니라 교과 사교육 경감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온다. 공교육 질 제고도 쟁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늘봄’에만 과도하게 집중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근혜 광주교대 교수는 “보육을 하겠다면서 공립 초등학교의 질 저하로 이어지면 근본이 흔들린다”며 “늘봄학교 재원을 학교 운영비나 한시적인 특별교부금 외에 얼마나 더 줄 지, 인력과 공간은 어떻게 할 건지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김성천 한국교원대 교수는 “늘봄학교를 학교에만 맡길 것은 아니며, 시민사회, 마을이나 학부모 협동조합, 거점형 모델 등을 병행해야 한다”며 지역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희면기자



## 보성경찰, 현장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대응 훈련 실시

보성경찰서(서장 양백승)는 지난 14일 보성을 주봉리에 있는 보성제일요양병원에서 요양병원 대형화재로 인한 재난상황을 가정하여 유관기관 합동 재난대응 훈련을 했다. 보성=김덕순기자



## 담양경찰, 대형교통사고 유관기관 합동 상황훈련(FTX) 실시

담양경찰서(서장 권현호)는 대곡터널 입구에서 대형교통사고 현장대응 상황훈련(FTX)을 경찰서 주관 담양군청, 담양소방서, 광주국토관리사무소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였다. 담양=박종영기자



## 무안 승달파출소, 협력단체 합동순찰 참여치안 실현

무안경찰서(서장 강용준) 승달파출소는, 지난 14일 저녁 몽탄면 소재지 일원에서 경찰관 등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을 지키기 위한 야간 합동순찰을 전개하였다. 무안=이기성기자



## 나주경찰, 수사경찰 워크숍 개최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에서는 지난 15일 정성스런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사경찰 워크숍을 개최하고, 열린 토론과 외부강사의 객관적 특강을 수강하였다. 나주=송준표기자



## 진도소방,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생활밀착형 안전대책 추진

진도소방서(서장 박천조)는 제44회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에 소방공무원 60명 의용소방대원 100여명을 고정배치 하여 성공적인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를 위한 안전관리에 총력을 다하였다. 진도=조상용기자



## 광양소방, 광양매화축제 안전지킴이 역할 특목

광양소방서(서장 정강욱)는 ‘제23회 광양매화축제(3.8.~3.17.)기간 현장 119상황실 운영 및 임시119안전센터를 가동하고 119안전체험부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양=기동취재본부

# “주몽 촬영장 철거냐 존치냐”...나주시 내달 결정 낸다

나주시민권익위, 오는 4월 세트장 존치·철거 ‘권고안 결정’



인기 드라마 ‘주몽’을 촬영했던 나주 영상테마파크 내 고구려궁 드라마세트장 철거 문제를 놓고 일고 있는 ‘찬·반’ 갈등이 4월 중순께 종식될 전망이다. 나주 드라마세트장은 전남도가 추진하는 남도 의병역사박물관 건립을 위해 철거를 앞두고 있지만 박물관과 연계해 ‘재활용 존치’를 주장하는 일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철거 반대운동이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나주시는 2022년 시설물 정밀안전 진단 결과 종합 C등급을 받았고 일부 건축물은 노후화로 D등급 판정이 나올 만큼 구조물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 때문에 드라마세트장 외 다중이 이용하는 체험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에는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7일 나주시에 따르면 나주시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오후 2시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고구려궁 존치·철거 관련 대시민 토론회’를 열고, 해당 시설물 철거 문제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4월 중순까지 시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7월 출범한 시민권익위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해법을 찾는 민·관 협치 기구다. 각종 현안 사업 추진으로 지역 내 ‘찬반 갈등’이 발생하면 안전으로 상정해 토론과 심의·의결 과

정을 거쳐 실질적인 해법과 정책을 행정에 시정 권고하는 역할도 맡고 있다. 시민권익위는 이날 시민토론회 이후 위원 회의를 갖고 ‘고구려궁 존치, 철거 입장’ 측 구조 전문가 2명씩을 추천받아 4월 중순 내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기로 확정했다. 해당 토론회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고구려궁 철거 이슈와 관련된 정책 권고안을 최종 결정하고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3월 말까지 전문가 추천이 없으면 토론회 개최 없이 기존 사업계획대로 고구려궁 철거를 결정하는 정책 권고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앞서 14일 열린 토론회에서 고구려궁 시설물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단체 측 발제자들은 “기존 건축물을 존치·활용해 남도의병역사박물관과 시너지를 내는 방안으로 관광객을 유치해야 한다”며 철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철거 찬성 측 전문가들은 “2022년 전남도 정밀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고구려궁 하부 구조물 콘크리트 강도와 탄산화 조사, 결함 조사 등을 세부적으로 설명하며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을 고려할 때 철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나주 영상테마파크 일원에 들어설 남도의병역사박물관은 남도의병의 구국 충훈을 기리고 정신 계승을 위해 전시·체험·교육 공간 등을 갖추게 된다. 오는 2025년 말까지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 일원 부지 36만3686㎡(110만평), 연면적 6884㎡ 규모로 건립된다. 나주=송준표기자